

도로 불편신고 SNS 활용 '효과 만점'

광주시 '빛고를 길 지킴이 밴드' 3개월간 500건 처리 처리과정 빨라지고 간편해져 시민 만족도 크게 상승

광주시민의 제보를 활용해 도로 환경을 관리·보수하는 모바일 도로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인 '빛고를 길 지킴이' 밴드가 도로 관리의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SNS 빛고를 길 지킴이 밴드'는 그동안 500건의 시민 민원을 받아 350건을 정비완료 했고, 나머지 150건은 정비 중이다.

민원은 포장관리가 2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안전 104건, 보도정비 29건, 대중교통 6건, 기타 79건 등이다. 처리 건수는 포장관리 207건, 교통안전

68건, 보도정비 9건, 대중교통 4건, 기타 62건 등이다.

시민의 참여도 활발해 처음 30명으로 출발한 회원 수가 현재는 415명으로 늘었다.

빛고를 길 지킴이는 회원들이 도로의 문제점을 발견해 위치와 사진을 소셜 네트워크인 밴드에 내면 시는 이를 관련 부서에 통보해 즉각 문제 해결에 나서고 처리과정도 회원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박병식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과장은 "휴대전화 SNS를 활용한 덕분에

민원접수가 간편해진데다 접수 후 처리과정도 빨라지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정참여를 이끌어 내는 등 긍정적인 요인이 많은 만큼 다양한 민원 행정시스템에도 SNS를 접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휴대전화 등을 활용해 도로불편을 제보하는 '빛고를 길 지킴이'는 기존 회원의 초대만 받아 가입하거나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과(062-613-6946)로 문의하면 가입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지난 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사회공공협약 광주시 공공부문 간접고용 근절과 비정규직 고용·처우 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 최초 사회공공협약 체결

노동기본권 보장·임금 등 개선 간접고용 근절·비정규직 논의

광주시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가 지자체-민주노총 산별노조 간 협약으로는 전국 최초로 사회공공협약을 체결했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조상수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지난 6일 광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사회공공협약'과 '광주광역시 공공부문 간접고용 근절과 비정규직 고용·처우개선을 위한 사회공공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사회공공협약'에는 광주시가 관할하는 사회공공서비스분야(사회복지, 대중교통, 문화예술, 공공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 임금 등 처우의 개선과 함께 분야별 정책에 대한 지

속적이고 정기적인 협의를 약속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노조는 '사회공공협약' 중 비정규직과 관련한 분야를 특화시켜 '광주광역시 공공부문 간접고용 근절과 비정규직 고용·처우개선을 위한 사회공공협약'이라는 별도의 협약을 함께 체결했다.

비정규직처우개선을 위한 협약에는 최근 정규직·직접고용 전환된 준공무직 노동자

들의 임금과 처우개선과 관련, 노·정간의 구체적인 협의의 진행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앞으로 광주시와 노조는 이번이 체결한 사회공공협약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각 분야(사회복지, 공공서비스, 문화예술, 빛가람 혁신도시 성공적 건설 등)에 대한 별도의 협약체결을 목표로 지속적, 정례적인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

권익위 254개 기관 평가 광주 전년 10위서 5위로 상승

광주시와 전남도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광역자치단체 17개와 시·도교

육청 17개 등 총 254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했다.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1~5등급)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각각 2등급을 받았다. 광주시는 특히 17개 시·도 중 5위로, 전년 10위(3등급)보다 5단계나 뛰어 오르는 성과를 냈다. 시는 그동안 부패방지를 위해 공직자 직무 관련 범죄고발지침을 제정하고, 청렴시민감사관 감사 참여, 복지부정 및 예산낭비 신고 활성화, 청렴

교육 추진 등 반부패 청렴 시책을 적극 펼쳐왔다.

한편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는 광주시교육청이 2등급을, 전남도교육청은 3등급을 각각 받았다.

국립대학 대상 평가에서 전남대는 4등급의 하위권 평가를 받았다. 지방공기업에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는 광주환경공단,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전남개발공사는 3등을 각각 받았다.

공직유관단체 대상으로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등급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전 KPS는 2등급을, 한전과 한전KDN는 3등급을 받았다. 한국농어촌공사는 4등급을 받아 '하위권'을 기록했다.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인프라 구축, 정책투명성·신뢰성 제고, 부패유발요인 개선·개선 등 반부패의지노력과 청렴도 제진, 부패공직자 발생 등 부패방지 성과,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 등을 토대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초경량 차체 기술 개발에 300억 투자

대학·부품기업 등과 공동 고성능 자동차 개발 핵심분야

광주시가 '자동차산업밸리'와 고성능 고효율 자동차 개발의 기반이 될 '초경량 고강성 차체 부품 기술 개발' 사업에 나선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차체 핵심부품 개발과 연구기반 구축을 위해 2018년까지 모두 300억원(국비 150억원, 시비 100억원, 민자 5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50억원(국비 25억원, 시비 17억원, 민자 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역 부품기업, 대학, 자동차부품연구원 등이 공동 기술개발에 나선다.

또 지역 주도형 연구개발 사업으로 상용화 비율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

으며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협의체 등에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지역 자동차산업 성공에 중추적으로 이바지할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초경량 고강성 차체 부품은 차량 성능을 개선해 고성능 자동차로 발전하기 위한 핵심분야로, 현대자동차도 2018년까지 31조원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손경중 광주시 자동차산업과장은 "이번 투자로 경량화 기술력이 취약한 지역 차체 부품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일익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나주혁신도시 내일 '반 고희 음악회'

스트레스 제로 등 특강

광주시와 전남도가 활성화에 주력중인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공공기관 직원들을 위한 '벤센트 반고흐 음악회'가 열린다.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주관으로 10일 오후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내 녹십자 공공원 교육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상생 세미나에서는 음악회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 특강 등이 준비돼 있다. 참가비는 무료다.

특히 상호교류의 시간, 공공기관 스트레스 제로일터 만들기, 공공기관 역량평가(AC) 도입 가이드 등을 주제로 한 강의는 수도권 근무지를 떠나 적응중인 혁신도시 근무자들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K-Art 문화예술공연 '반 고희 음악회'는 서울대 음대, 독일하노버 국립음대, 자브뤼켄 국립음대 출신인 김이곤 감독이 총감독 및 해설을 맡고, 피아니스트 박정국, 첼리스트 박혜준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한국능률협회 변원섭 호남본부장은 "빛가람 혁신도시와 주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조기정착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와 수준 높은 음악회를 통해 마음을 힐링할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능률협회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지역문화 바로알기, 기관 생산성 향상법 등 직원들의 역량강화 및 여가생활 향상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우치공원 해빙기 안전점검

17일까지 노후건물 등 전분야

광주시 우치공원관리사무소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8일 "해빙기와 설을 맞아 우치동물원 관람객이 급증할 예상됨에 따라 11일부터 17일까지 우치동물원 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동물원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점검반은 2개반 8명으로 구성되며, 동물원내 건축, 도목, 전기, 기계설비, 조경 등 각종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해빙기를 맞아 동물원 내 노후 건축물, 경사지, 옹벽, 울타리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부분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점검 결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은 긴급 보수에 위한 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정남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은 "시민 등 관람객의 안전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분기별 1회씩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원주택지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임야 1084㎡(328평)
- 20필지 중 1필지
- 광덕교차로에서 5분거리
- 기반시설 조성중(화순 군청) 2015년 5월 완공 예정
- 매매 - 1억3천1백20만원

문의. 010-3605-5000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 광전파크 빌라 5층중 3층 34평
- 정남향, 2013년 신축, 내부 깨끗
- 방 3, 화장실 2, 거실 1
- 신우APT 근처
- 감정/시세 - 1억9천만원
- 급매 - 1억 5500만원

빌라 "급매"

주인 직매 H. 010-3605-5000

베스트 이비인후과 신우신협 오상근외과 신우APT 제5동

오피스텔 매매

- 광주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문의 010-3605-5000

- 77평, 20층
- 최상층, 코너, 전망좋은 사무실 전용, 전체 울수리, 도시가스
- 보 2천에 월 100만원 임대가
- 매매 - 3억원

- 18평, 10층
- 20층중 10층, 코너, 전망좋은 주거겸 사무실, 전체 울수리
- 매매 - 5천만원 (일시불 조정가능)

경매 투자

- ▶ 특수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1200만원
- ▶ 단독/공동투자 하실 분! 자본금 1억원 이상

오천경매 H.010-3605-5000